

연 중 제 4 주 일
(구 라 주 일)

기도서 P. 337

- 제 1 독서 (신 명 18, 15-20)
- 제 2 독서 (고린전 7, 32-35)
- 복 음 (마 르 1, 21-28)

숲 정 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⑤ 5098 ③ 3201

강 련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 민 호 신부

하루는 주님께서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습니
 다. 그 당시 나병환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극도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마치 살아있는 송장 취급
 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자기 옷을 찢어서 걸치고 머리를
 헹글어뜨리고 얼굴을 가린채 <부정한 자입니다>하
 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자연히
 격리된 생활속에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냉
 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불편한 몸과 흉측한 몸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육체적 고통보
 다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아마 인간이 당하는
 고통중에 극도의 고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고통을 측은히 보시고 그들
 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중 한 사람
 만이 주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정말로 뜨
 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있는데 아홉
 은 어디 가고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단 말이냐” 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로서 15번째 맞이하는
 구라주일입니다. 비록 나병이 불치의 병이 아니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으면 치유되는 병이며 전염
 물도 높지 않지만 걸으므로 보기에 흉측하고 정신적
 으로 소외된 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과 그들이
 당하는 여러가지 고통을 생각할 때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 그들속에 끼지 않았는지
 요? 인구 천명 중에 한명꼴이 나환자라고 합니
 다. 우리는 하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그 한명 속
 에 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를 드려야 합
 니다.

주님께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뜻
 으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 큰 은혜에 보답하
 는 길은 우리 대신 보속하고 있는 나환자들에게
 관심을 갖어 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아
 가도록 기도해 주며 힘껏 그들의 불편함을 도와주
 는 것입니다.

나환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하느님께는 감사
 를 드립니다.
 <신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사랑 썩는 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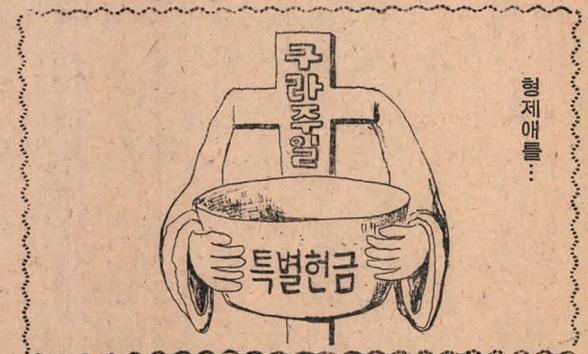
수필다운 수필을 쓰자고 모인 이들이 펴낸 동인집(同
 人集)의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한다. 그들만의 소
 리라기에는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게 커서 옮겨 본다.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가 몇할 잡문(雜文)을 적어내면
 수필이 되고, 돈많은 사장이 짧잡은 냇두리로 책 한권을
 묶어내면 수필가로 둔갑되고, 생활이 안정된 주부가 고
 급 취미의 소일거리로 일기같은 수다를 늘어놓고도 수필
 쓰는 작가로 자처하는 것이 오늘의 역설적인 수필 풍토
 라 하겠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 수필인가를 따지자는 이야기
 는 아니다. 다만 인생의 길을 걸으며, 제 나름대로의 몫
 을 지키며 거드름이나 피우지 않았는지를 되돌아 보자는
 말이다. 제길에서는 멀리 벗어나 있으면서도 시킬 뚝 따
 고, 제길을 걷는 것처럼 (체)하지 않았나는 살펴보자는
 소리이다. 교사의 정도를 떠난지 이미 오래이면서도 ‘스
 승인 체’하지는 않았는가? 민중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는
 뭇켄에 쑤셔박아놓고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살아
 가는 ‘지도자(愛國者)인 체’하지는 않았는가? 누구에게
 나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은, 아니 매일 매일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찬,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지 말라는 제율이나 지키고, 어찌다가
 육교에 서서 노래부르는 장님에게 동전 한냥 건넸다고
 크리스찬의 전부인가? 구라주일에나 한 번, 외롭게 사
 는 나환자들에게 관심 갖는다고 전부인가? 어느 한 모
 습은 될지 몰라도 전부는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다.
 일그러진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음식을 나누고, 썩어
 문드러진 그들과 한 이부자리에서 잠자리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세이어야 할 것이다.

입에서만 나오는 사랑의 썩은 냄새를 더 이상 풍기지
 말자.

숲 정 이 산 채



축! 서품(叙品)

얼마나 오래동안 기다리던 오늘인가? 살얼음을 지치듯 조심 조심 10여성상(星霜), 3S(덕행, 학식, 건강)의 수련속에 드디어 장한 죽음의 대열에 올라신 님들께 감격의 모용과 깊은 축복으로 맞이한다.

사제(司祭)란 그리스도의 예언직(宣敎)과 사제직(典禮), 왕직(奉仕)을 대행(代行)하는 성무(聖務)에 몸바치기 위해 성스런 직임(職任)을 받는자—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만인 위한 희생으로 죽어 새 삶(復活)을 구현해야 할 엄숙한 존재다.

안일(安逸)을 쫓는 세상에 희생을 자처하며 서품되는 님들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을 보내며 전도 축복을 빌어드리자. 특별히 참지고 값진 생을 엮어보려는 젊은이들의 관심 깊은 참여와 동참을 빌어마지 않는다.

(김요한 신부)

서품식 예고

서품일시 : 1982년 2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서품장소 : 전주 중앙 성당
주 배 : 김 재덕 주교님
서품예정자 : 사제품—박찬걸(미카엘) 중앙 본당
안철문(이나시오)복자 //
부제품—나춘성(스테파노)팔마 //
정양현(베드로) 김제 //
경규봉(가브리엘)고산 //

새 神父님들께

채 수 현

주의 봉헌축일을 맞아 하느님 백성안에서 선발되어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도록 고귀한 사제 서품을 받는 두 분과 부제품을 받는 세 분께 은총과 지혜의 성령께서 넘치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전례행사안에 항상 현존하시지만 미사성제에 있어서 성체형상과 사제의 인격안에도 현존하십니다. 사제는 거룩한 서품과 주교의 파견으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며 이 직무에 의해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신의 궁전으로써 지상에 건설됩니다.

현대생활 안에서의 사제들의 어려움은 많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세대가 사제들의 사랑과 직무에 맡겨져 있음을 생각하시고 아버지와 스승으로써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과, 무력한 사람, 쉬는 형제, 병자, 입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여 세심한 친절로 주 안에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충심으로 빌겠습니다. <꼬미씨움 단장>

새 목자(牧者)의 탄일에

파티마 김 숙(말파)

저 멀리 남쪽 영봉위에 깔려있는 구름 한자락, 그곳으로부터 봄의 숲결이 대지속으로 스며들어 양지쪽 속산디의 연한 새순을 피우는 입춘의 계절에—

사제서품을 받으시는 두 분 신부님과 부제서품을 받으시는 세 분 부제님의 영광스러운 탄일을 맞이하여 삼가 무슨 말씀으로 축복을 올려야 할지? 새삼 포현의 미움함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두손 앞에 하고 깊이 고개숙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 드릴 뿐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의 기쁨은 당신의 은총입니다. 광활한 초지위에 베 지어 풀을 뜯는 고운. 눈망울의 양배들, 저 선한 목소리로 목자를 부르거니.

이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 주십시오. 받아도 받아도 다함이 없는 은총 아닙니까? 님들의 생애가 당신 섭리안에 있음에 당신께서 님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오늘로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하느니. 목자의 뜻에 순종할 것이.

가라는 길 가교

마시라는 샘물 마시고

돌아오라 부를때 지체치 않고 달려 돌아 갈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구라(救癩)주일을 맞으며

신 릿 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구라주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특별헌금통'과 함께 사라져 간다. 우리 자신, 나는 그 세속에 속하지 않은 다행함과 안도감으로 일년동안 물어두고 잊어버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얼마전 소록도에 갔을 때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 태양이 빛났기 때문에 그 안에 환자들이 더욱 비참하게 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이는 人間의 可視的인 눈으로 본 것이니 主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 그보다 더한 마음의 나병을 앓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主님이 멀어져 가도 그 아픔을 못느끼고, 죄를 범해도 죄의식조차 없는 우리는 분명 기막힌 나병환자들이다.

우리 모두 어찌보면 같은 병을 앓고 있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형제를 통해서만이 主님을 만날 수 있으니 육체의 병은 우리의 '나누는 마음과 행동'이 약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병은 그렇게 '나눔'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이제 나를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 보며 또 다른 나를 위하듯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누는 마음과 행동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선미 꽃집

전주극장골목 전화②2628

범띠도(떡배)·이마리아

성심치과 의원

군산시 중앙로 1가 96

(만수병원 옆)

☎ ② 6917 · ② 1294

원장 강기현(원선시외)

☐ 축! 개업

일시 : 1981. 12. 15 09시

숲정이슈퍼마켓

전주시 진북동 1159-5

전화주문 배달함

(숲정이성당앞)

전화 ③ 3550

김원겸(시릴로)·박효승

◎ 이전 개업

진명 유리 상사

유리공사, 거울, 액자, 각종 선물용

◎ 교우님들께 특별봉사

※ 전화 주문 배수

관동로, 서울신탁은행앞

전화 ② 7467

손소부(아오스딩) 드림

ECCLESIA

1월중 실시한 각 본당별 교육

교구 사목지침에 발맞추 많은 본당들이 전 신자를 대상으로 성서 공부에 열을 쏟는가 하면 제중별 연수회 및 피정으로 희망찬 새해 첫 달을 가득 채웠다.

예년과는 달리 본당 단위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 교육은 노송·부안·복자·수유·순정·팔마 본당이, 청년들의 연수회는 김계·주현동이, 중·고생들은 중앙·둔울·무주·상관·순창·여산·원평·장수·정읍·주현·함열본당 등이 다양한 내용으로 동계 연수회를 가졌으며, 국민학생들을 위하여 중앙·덕진·둔울·순정·오룡동 등 연 24개 본당들이 이미 1월중에 교육을 마쳤다.

교구단위 연수회와 밝혀지지 않은 피정을 합하면 놀라운 제중별 교육을 한 셈이다. 다음 달에도 짜임새 있는 교육으로 신심 양양에 중지와 힘을 모으자.

성심·해성 교직원 연수회

지난 23일 가톨릭 센터에서는 교구 산하 4개학교 교직원 125명이 자리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그리스도인 스승의 자세를 가다듬는 1일 연수를 갖었다. 본 교장양대 명문교의 선생님들이어서인지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임한 그 숙연함에 한결 신앙의 새로운 결의가 돋보였다. 해성·성심의 더 큰 발전 있기를...

M. B. W. CONVIVENZA (콘비벤자)

M. B. W 추진회에서는 교구별로는 매월 1번씩, 전국 추진회는 1년에 2번씩 "함께 생활한다"는 뜻의 CONVIVENZA를 갖는다. 이는 영성 강화를 통한 자체 세신, 형제애 강화, 연수 등이 목적이다.

이번 2월 8일 17:00~2월 11일 12:00까지 정읍 내장산 관광호텔 부속 산장에서 전국 CONVIVENZA를 갖는데, 1일은 M. B. W 추진회 자체 영성을 위한 피정을 하고 나머지 2박 3일은 새 본당상(N.I.P. : New Image of Parish) course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연수한다. 너무도 비대한 현금(現金)의 본당이 사립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음에 미래의 새 본당은 작은 크리스찬 기초 공동체(B.C.C)들의 모임이 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N.I.P. course 연수회에 관심있는 본당신부님들을 초대하면서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회비는 30,000원

招待의 말씀

壬戌年 새해에 尊堂의 萬福하심을 仰祝하나이다. 今般 福者 天主敎會 使徒會에서는 神學生과 不遇한 學生들의 獎學基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東洋畵(東洋畫) 및 서예작품(書藝作品)의 전시회(展示會)를 갖기로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愛好家 諸賢께서 취향에 맞는 作品을 選擇하여 所藏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觀展하시와 많은 指導와 鞭撻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招待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展示會의 뜻에 積極 參與하시어 作品을 그려주신 稚石 南谷 碧江 秋耕 春浦 稚汀 雲峴 旨堂 諸先生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 1982년 2월 3일~2월 7일(5일간) 장소 : 전주 관광호텔 1층 전시관
주최 : 복자 천주교회 후원 : 천주교 전주교구 인성회

福者天主敎會 主任神父 金 鍾 澤 拜

요심이 (443) 김병오



베소라성령세미나

우리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 "말씀"에 바탕을 둔 세미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노송동 주임 김정원 신부님의 지도로 아래와 같이 성령세미나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날짜 : 2월 5일~7일

장소 : 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3 노송동 천주교회 (전화 ☎ 7032번)

회비 : 7,000원

참고 : 2월 5일 3시부터 강의 시작. 2월 5일 2시까지 접수

※ 속식은 개인 부담

베소라성령쇄신 봉사회

건강을 드리는 회소식!!

◎土龍(진액·갈색·분말)

※ 종래의 토룡탕보다 농도와 효능이 탁월함

「팥베떡도 수도원 제조」

토룡센타(전북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 ☎ 5587번

할 수산나

신학기 학습품 특별봉사

시민 노트사

소방서 뒷사거리

중앙시장 입구

교우집을 찾아 주세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강영욱(로모알드)

☎ ④ 2622

금·은·보석·시계

일성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워크엔드 버킹검

Weekend Buckingham

맥그리거 주니어 아동복

MCGREGOR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4451

유 율리안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구라주일...특별헌금 있습니다

- 1. 교리교사 동계 연수회...① 2월 8일~10일(2박 3일), 접수-오후 1시, 1·2·3 지구
- ② 2월 11일~13일(2박 3일), 접수-오후 1시, 4·5·6·7 지구
- 2. 군중후원회 월례미사...2월 1일(월) 오후 7시. 가톨릭센터 3층 338호실
- 3. 제 2 지구 울뜨레아...31일(일) 오후 2시. 문율동 성당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정종인
보좌 신부 박인광
사도 회장 박훈

- ◎ 성경읽기 : 사무엘하 15장~24장, 열왕기 2장~3장, 마르코 5장~6장
- 1. 사제서품 : 2월 오전 10시 30분, 새신부 첫미사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양일간 오전 6시미사 없읍니다
- 2. 초불헌 : 주의 봉헌축일 2월 2일(화)이오나 사제서품식 관계로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공식미사에 초불헌에 절이 있습니다. 교우여러분은 조(大) 두자루 이상씩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는 당일 사무실에서 판매 바랍니다 (공식미사에)
- 3. 예비자 봉헌예식 : 1월 31일 예비자봉헌에 전원 참석 바랍니다 (공식미사에)
- 4. 사도회 상임위원회 : 2월 6일(토) 오후 7시 본당신부 사무실
- 5. 성심부녀회 : 2월 5일(금) 어머니미사 후
- 6. 통신성서 강의 시작 : 기존반-매주 금요일 낮 11시 밤 7시 30분 강당, 신설반-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 7. 자모회 임원회 : 2월 5일 오후 2시 유신부 사무실
- 8. 중학생 주일학교 신설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중 1학년 담임-이소피아 수녀(교리실), 중 2학년 담임-박베드로 신부, 중 3학년 담임-나제노베카 수녀(교리실)
- 9. 주일학교 미사시간 변경 : 2월 1일부터 오후 3시 교리, 오후 4시 미사
- 10. 설우회 창립총회 : 2월 2일(화) 오후 7시 강당 ※ 81년 6월 28일 영제자(남자 성인)
- 11. 2전대회 : 서울 1월 29일~31일(남녀 포함)
- 지난주 봉헌금 : 752, 603원

(노송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1. 전국 성령세미나 : 2월 5일~7일까지(2박 3일) 참가비-7,000원, 숙식 개인부담, 본당신자도 환영
- 2. 예비자를 안내합니다 : 2월 7일부터 매주일 공식미사 후에 교리가 있습니다
- 3. 베소라 성서강의 : 2월 2일 저녁미사 후
- 4. 교무금을 신입합니다 : 아직도 교무금을 신입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속히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접세트 기증 : 한송희(토마스)씨께서 보좌신부님 응접실에 응접세트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6. 저녁미사 신설 : 매일 저녁 7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97, 110원 규정 예물 : 416, 8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상열
사도 회장 양상열

- 1. 진복회 월례회의 : 미사후 회의실
- 2. 부녀회 월례회의 : 미사후 성당
- 3. 다음주 사도회 월례회의 : 구역장·반장·사도회임원
- 4. 오늘 구라주일 : 나환자를 위하여 특별헌금 있습니다
- 5. 오늘 반석회 긴급소집 : 사제관 연락 ①1475
- 6. 전례 : 금주해설-김은식, 독서-①김용철 ②박용철 차주해설-이철중, 독서-①양상열 ②이성환
- 7. 2월 2일 본당미사 없음 : 서품식관계
- 지난주 봉헌금 : 583, 250원 합동위령미사 : 257, 350원

(복자)

전화 ⑤2538번
주임 신부 김홍택
보좌 신부 김호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 2. 첫 철레 5 : 2월 4일 저녁 7시
- 3. 첫 철레 7 : 2월 6일 저녁 7시
- 4. 축! 서품 안철문 : 서품일시-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중양성당, 첫미사-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복자성당

- 4. 축삭식-2월 3일 첫미사 후 복자성당 ※ 기도 바람
- 5. 복자부녀회 : 2월 1일 어머니미사 후
- 6. 구라주일 : 나환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 7. 동양화 및 서예전시회 : 신학생과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주최 : 복자성당 사도회·성우회·인성회, 장소 : 관광호텔 1층 전시관, 후원 : 천주교 전주교구 인성회, 일시 : 2월 3일~7일
- 8. 차주전례 : 해설-은마리아, 독서-①박상기 ②고희구
- 지난주 봉헌금 : 430, 930원 규정합동미사 : 417, 5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구

- 1. 오늘은 구라주일 특별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 2. 사도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3. 초 불헌 : 다음주일 공식미사중 축성 있음 (2월 2일 신품성사 관계로 미사없음)
- 4. 1년간 포도주 제반 불헌 : 손혜레나 감사합니다
- 5. 전기히타 및 석유난로 2대 기증 : 익명 감사합니다
- 6. 제대 꽃 봉헌 : 조루시야씨 감사합니다
- 7. 영세자·견진자 사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8. 설가연습 : 매주(목) 11시 30분
- 9. 전례담당 : 독서-①정만성 ②이정빈
- 지난주 봉헌금 : 228, 755원 교무금 : 222, 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겸

- 1. 구라주일 특별헌금 정성껏 내주세요
- 2. 사도회 월례회 : 2월 7일 공식미사 후
- 3. 요안화원 피정 : 1월 31일, 남성님을 많이 참석 바랍니다
- 4. 청년회·대학생회원 피정 : 2월 7일, 참가비-2,000원
- 5. 차주 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①이원일 ②송용호 기도-이강노
- 6. 차주 미사안내 : 나홍덕, 문스텔라, 정공순, 이정숙 육누시아, 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 398, 485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1.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2시 사제관에서
-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 다음주 8시 30분 미사후
- 4. 설가정회 : 2월 1일 오후 2시
- 5. 구라주일 : 오늘 구라주일 특별헌금 있음
- 6. 주일학교 개학 : 2월 7일 1시 30분
- 7. 주일학교 교사회 정기총회 : 1월 22일 신회장-김현배, 부회장-김평진, 회계-김육선
- 8. 신축기금 헌금 : 재경부장-양현홍(147, 530원)
-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최병례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장광태 ②김병오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이진홍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470, 32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 1. 재경분과 토의 : 오늘밤 미사후
-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10시미사 후
- 3. 꾸리아·성모기사회 :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 4. 사도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서일대로 : ① 선교분과 ② 교육분과 ③ 전례분과 ④ 봉사분과 ⑤ 재경분과 (첫주일은 예정대로 사도회 월례회입니다)
- 5. 성모회 총회 : 2월 9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 6. 초 축성 : 아침 6시 30분, 축성한 초 전일까지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 141, 500원 교무금 : 324, 000원